

# 2021년까지 車 전용산단...내년 국비 403억 확보 청신호

## 에타 통과 '자동차 100만대 생산' 경제 효과와 추진 일정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 통과로 민선 6기 핵심사업인 자동차산업벨리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에초 이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그동안 정부와 국내 완성차 기업들의 무관심으로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었다.

하지만, 2년여간 윤장현 광주시장과 시청 공무원들, 시민, 지역 정치권 등이 합심한 탐과 노력이 에타 통과라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지역의 최대 역점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향후 추진 계획=확정된 사업 내용에는 근로자의 복지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 문화, 에너지 등 첨단 복합산단 기능을 강화하는 자동차 전용산단 조성방안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시는 2021년까지 국비 2000억원 등 3030억원을 들여 첨단복합 형태의 자동차 전용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부품기업 기술지원과 공용장비 구축에 필요한 기술지원센터, 기업 간 네트워크와 맞춤형 인력양성 등으로 활용될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등 지원시설 구축도 진행된다.

친환경자동차 부품 기술개발사업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차량 경량화, 고효율 전동부품 및 광응용 전장기술, 융합형 특수목적차 기술개발 등 4대 전략 기술개발이 추진된다.

또한, 기술주도형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사업과 부품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기술개발 인력양성사업도 함께 추진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 CEO·연구소장들과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세부 실행계획도 마련한다.

당면 과제는 내년 국비 확보다. 시는 403억원을 요구했으며 에타 통과를 근거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

국비 2000억 등 3030억 투입

전기차 등 친환경차 기반 조성

광주만 7000여명 일자리 창출

전국 1조5000억원 생산 효과

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자동차 전용산단 조성이 본격화되며 지원시설 착공, 친환경부품 기술개발사업 추진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그동안 정량적인 부분에 치우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온 사업명도 ‘친환경자동차부품 단지 조성사업’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중앙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기대효과 및 경제효과=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생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인 만큼 미래형 친환경부품 산업 육성에 맞춰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

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지역의 취약한 산업구조의 한계를 극복,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에 따라 지역에 활력이 넘쳐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연구원은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전국적으로 1조5000억원 생산효과와 1만1000여명의 고용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지역에서는 7900억원의 생산과 2300억원의 부가가치, 7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다른 지역보다 유리한 친환경 자동차산업 지원 인프라가 조성될 것으로 보며, 최근 투자를 약속한 중국의 지우통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와 자동차 부품기업 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시는 예측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여권 청와대 오찬 회동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정진석 원내대표(왼쪽) 등 참석 의원들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누리당 지도부 및 국회의원 오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진석 “자동차 100만대·광주형일자리 신선”

청와대 오찬서 긍정 언급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에 대해 긍정성을 공식 언급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박 대통령 초청 새누리당 의원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광주시장이 연봉 4000만원 수준의 현대기아차 공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제안했는데 상당히 합리적인 제안이다. 국내 투자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단체장이 그런 아이

디어 제시하는 모습이 신선했다”고 박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10일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광주시정의 제안과 함께 소득격차 문제, 내가 대표연설에서 언급했던 중형평준화 추진을 함께 말씀드렸더니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셨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가 대통령에게 언급한 광주 완성차 생산기지 사업의 틀은 애초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다. /박지경기자jpark@kwangju.co.kr

## 장·차관들 광주·전남행 리시 현장 행정...불통 이미지 씻기

8일 3개 부처 장·차관 광주·신안·완도 찾아

중앙부처 장관 등의 광주·전남행이 최근 리시를 이루고 있다. 이는 중앙 정부에 대한 불통 지적이 거센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현장 행정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은 지난 8일 신안군청을 방문, 공무원과 지역민을 상대로 간담회를 가졌다. 홍 장관은 이날 여성 홀로 근무하는 가란도보건진료소를 방문, 도서지역 여성 안전확

보 및 치안대책을 점검하고 여성공무원 육성을 위한 긴급신용 스마트워치 작동 여부를 점검했다. 홍 장관은 또 도서나도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격려한 뒤 신안경찰서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이날 광주과학기술원 조미세먼지피해저감 사업단을 방문,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기획위원회가 오는 9월까지 마련할 미세먼지 기술개발 종합계획

안에도 연구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될 수 있을 바란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최 장관에게 조미세먼지 연구현황을 설명한 뒤 관련실험 시연을 선보였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도 8일 완도항에서 열린 다목적 해양쓰레기수거시스템을 장착한 55t급 정소선 취항식에 참석했다. 앞서 지난달 26일엔 세월호 인양과 관련, 진도 팽목항을 방문했다.

이같이 최근 중앙부처 수장들이 잇따라 광주·전남을 찾는 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현장행정을 강화해 민심과 스킨십을 늘리고 중앙정부와 지방 간 불통 행정을 해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車 100만대 국가사업 확정, 민·관·정 공조로 일궈낸 쾌거

이른바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된데는 민·관의 노력과 정치권의 긴밀한 협력이 빛어낸 성과로 평가된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자동차 산업벨리 조성을 민선 6기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전국 최초로 자동차산업과 사회통합 추진단을 만들고 사단법인 자동차산업벨리 추진위원회, 자동차산업 육성지원 조례 등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노사민정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구상했으며, 기아차 노조의 협력과 노사민정협의회 결의문 채택도 이끌어내는 등 노사상생문화를 조성하기도 했다.

시민, 향우, 달빛(달구벌·빛고을) 동맹 상대방인 대구, 전남 5개 시·군, 강원도 등 다른 시·도민 등이 동참한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여 지역민의 염원을 확인했다.

지역 정치권도 총선 핵심공약으로 이 사업을 채택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새누리당 광주시장도 기획 단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예산 반영 등 절차에 적극 협력했고, 국민의당은 김동철 시장 위원

장이 지난 2014년 당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사업 단계 때부터 에타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장병완 의원도 올해 국비 30억원을 반영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무엇보다 윤 시장의 진정성과 독심이 통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시장 안팎에서 사업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윤 시장은 지역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정치권과 정부를 설득해왔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광주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이 무엇보다 강했다는 점이다.

또한, 국내외 자동차기업에 서한문을 보내는 등 전기차 투자 유치에 적극 노력한 결과 전국 최초로 중국 지우통(九龍) 자동차의 국내 공장 유치를 이끌어 친환경 자동차 생산의 국내 최적지라는 증명을 해 보이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17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축제

"어린이와 함께하는" 제44회 강진청자축제

휴, 불 그리고 사람

2016 7.30.~8.07. 전라남도 강진군 청자촌

강진군

여름이 쿨 더우면 가리 물축제 1번지 장흥으뜸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16 우수축제

제9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2016. 7. 29. (금) ~ 8. 4. (목) 7일간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장흥군

7. 30.(토) ~ 8. 4.(목) 강진청자축제, 정남진 장흥 물축제 연계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